

# My Story, Our Story, The Story(삶, 우리의 삶, 나의 삶)

By Jan Parker OFS(미국국가형제회 회장 켄 파커)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삶을 살아 가면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한 곳도 가게 되고 생각지 못한 일도 하게 되는것 같다. 금년 초에 꿈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탄하면서 오랜 시간 비행기에 앉아 있었다. 이 작은 섬을 방문하기 위해 거진 세상 반 바퀴를 돌아 넓고 넓은 태평양 하늘을 날았던 것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꿈에 가게 되리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것도 두번씩이나 말이다. 다 하느님의 뜻이었다.



2020년 1월 4일 성 비오형제회 평의회원들이 켄 파커회장과 같이 형제회가 교회법적으로 설립된것을 축하하고 있다.

꿈에 다녀온지 석달이 지난 지금,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삶이 확 달라졌다. 다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 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는가? 인생 길은 우여곡절이 많다지만 신비하기만 하다.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묻게 된다.

옛날 교리시간에 오른편에 있는 무지개 모양의 그림을 본 적이 있다. MY STORY는 “나한테만 일어난 일 즉 나의 삶”이며 OUR STORY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즉 우리의 삶”이며 THE STORY는 그냥 “일어난 일(삶)”이다. 교리선생님은 이 그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나의 삶은 나에게만 일어난 일로 이루어



진다. 이 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더 큰 삶의 일부일 뿐이다. 이 더 큰 삶이란 우리의 삶을 말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 관계를 맺으며 공유하게 된 일들이다. 또 신앙공동체 또는 큰 의미의 교회에서 우리가 겪는 일같은 것도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 온 세상에 일어난 일, 모든 창조물에 일어난 일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보다 더 큰 일이 있다. 그냥 “삶”이라고 해 두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일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느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이 단순한 그림을 보고 나는 “삶”이라는 주제를 좀 이해하게 되었다.

## 나의 삶

나에게만 일어난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기억속에는 하느님께서 부르신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런 느낌은 갑자기 급격하게 오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알게 모르게 오기도 한다. 살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느끼는 경험은 극히 개인적이며 현실적이다. 이 느낌은 나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어 나로 하여금 나만의 길을 가게한다. 이것이 “나의 삶”이며 계속하여 내 삶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나의 삶은 나에게나 하느님에게나 결코 작은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삶의 한 조각일 뿐이다.

## 우리 삶

나의 삶은 우리 삶의 일부이다. 우리는 다른사람들과, 또 주변상황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하느님은 우리 삶안에서 우리 각자가 할 일을 주셨다. 서로 잘 지내며 세상만물을 돌보는 일을 예로 들수 있다. 우리 각자가 하고 안하는데 따라 세계공동체가 또는 세상이 큰 영향을 받는다. 젊은이나 늙은이, 믿는이나 안 믿는이, 진보나 보수에 관계없이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같은 배안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배는 기우뚱 거리다 결국 가라 앉고 말것이다. 사람은 혼자 살수없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일하고, 남한테서 배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더 큰삶

우리의 삶은 “삶”의 일부이다. 그 삶은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만이 아시는 삶이다. 삶을 마감할때 까지도 우리는 이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결국 삶을 완성하시리라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로버트 배론 주교는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은 탐험을 좋아하신다. 신앙이란 그런 하느님에게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즉 신앙이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시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행위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해보지 않은것을 시킬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드리라고 할때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느님을 믿고 더 큰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느님의 이끄심을 볼수는 없지만 느낄수는 있다.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르며 더 큰 삶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침이 없을 것이다. 세상 모든 창조물을 영광안에 들어 높이고 천상 것들과 하나로 만들때 까지”*<sup>1</sup>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나의 삶이나 우리 삶이나 결국 더 큰 삶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 각자는 일정한 시간동안 특정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다. 살면서 큰일을 당할때 우리는 신앙을 찾게 된다. *“[하느님]은 자신을 계시하여 인간에게 내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충분한 대답을 인간에게 주셨다.”*<sup>2</sup> 하느님의 삶에 우리가 같이 한다는 믿음은 의외로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준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비록 모르는 일이라도 성령이 이끄는대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된다. 이 믿음은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다시 일어나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서는……..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sup>3</sup> 함께 사는 삶 그것이 결국 부활이며 우리가 파스칼 신비 안에서 경축하는 희망과 기쁨의 삶인 것이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숨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시편 제 19 장)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프란시스칸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나의 삶은 내가 프란시스칸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에 뿌리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첫 만남에서 프란치스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란치스칸이 프란치스코의 삶에 매혹되어 그에 대해 배우고 그의 영성을 공부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다. 우리는 복음을 살기 위해 재속회원이 된것이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할 일을 여러분에게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프란치스코 또는 글라라의 영성을 산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사는 것이며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것이다.

프란치스코로서 우리의 삶은 극히 간단하다. 형제회와 형제애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작은자와 함께하며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한 가치로 높여주는 일을 한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을 보살핀다. 우리가 서약한 대로 살며,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십자가를 짊어 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자신을 남김없이 내어 줄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은 끈끈한 형제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걸려 넘어져도 형제자매들은 이를 이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단위형제회, 지구형제회, 세계형제회를 막론하고, 형제회는 열심한 회원들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매일매일 회개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할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반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일부인 “우리의 프란치스코 삶”을 생각해 보자.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프란치스코를 따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재속프란치스코회안에서 우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기대하지 않고 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때 재속회원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도록 은총을 주신다. 프란치스코가 지구 반 바퀴를 도는 여행을 하든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때문에 6 피트를 떨어져 있건 우리의 삶보다 크고 우리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온갖 것을 감싸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영광속에 오실때 까지 “주님의 가장 거룩하신 명령을 끝까지 따르라”<sup>4</sup> 고 격려하신다. 그때 가서야 비로서 진정한 회개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받들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 가서야 “삶”을 온전히 깨닫게 될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sup>5</sup>

### “우리 삶”에 대한 후기 ---“형제회 티셔츠로 만든 Q 이불”

2021 년도에 열릴 Quinquennial\*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여러 형제회에서 보낸 티셔츠로 이불을 만들어 경품을 준비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프란치스코인들이 티셔츠를 모아서 이불을 만들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불 한장에 “우리 모두”가 같이 있는 셈입니다. 실로 “한 이불속에 함께하는 형제회들”이며, 이는 “우리 형제회 삶”을 잘 보여 줍니다. 이 경품을 누가 타 갈지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경품이 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2021 Q 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이 경품 당첨 요령은 2021 년 8 월 부터 미국재속회 웹에 공고하겠습니다. (secularfranciscanusa.org) (젠 회장이 보낸 티셔츠는 이불 맨 아래칸 가운데 있는 노란색 셔츠입니다.)



\*5 년마다 열리는 전미국 재속회원들이 모임

평화와 선

젠

1. St. Andrew of Crete, Office of Readings for Palm Sunday
2.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68 가톨릭교회 교리서 68
3. Ephesians 2:4-5 에페소 2:4-5
4. Office of the Passion of St. Francis of Assisi, Psalm 15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의 수난 성무일도, 시편 15
5. Mt. 25:34, cf TOR Rule, Art 2 마태오 25:34, 정규 3 회 회칙 2 조